

社說

사업방식조차 결정못한 봉화골 지방단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봉화골(오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다. 2002년 포천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접경지원사업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반영되어 금방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던 중 제3차 수도권경비계획이 발표되면서 3년간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봉화골 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6년8월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또 2006년에는 (주)엘리아테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듯 싶었다. 그러나 최첨단 OLED산업을 유치하기로 한 엘리아테크가 자금부족과 사업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업을 자진포기 했다.

그러나 이들 공영개발사들도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직영개발 방식을 고려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직영개발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민간합동개발이나 순수 민간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제3차 수도권경비계획에 공업물량이 확보되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후 봉화골 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6년8월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또 2006년에는 (주)엘리아테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듯 싶었다. 그러나 최첨단 OLED산업을 유치하기로 한 엘리아테크가 자금부족과 사업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업을 자진포기 했다.

엘리아테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를 해 왔다.

■ 특필기고 ■

광복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

올해로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다 물도 춤을 춘다"라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지 62주년을 맞이하였다. 광복절은 1945년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 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표한 경축일이기도 하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강대국들의 밀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은 우선 우리나라의 쌀과 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 악랄을 시작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침략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고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일본어를 쓰게 강요하는 등 한국의 일 문화를 파괴했다. 일본이 세계대전에 관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징병되거나 강제노동에 징용되었고 일본의 군수품 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고 식민지 하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문학활동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독립을 선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36년의 식민지배를 탈피하고 광복이라는 빛을 되찾았다. 그 날은 모두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우리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행복에 눈물을 흘렸다.

올해도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은 그 날의 환희와 자랑스런 민주국가를 건설했던 기쁨과 찬 기쁨을 안고 기념식을 거행하고, 전국 각지에서도 경축행사를 펼쳐 광복의 환희를 경축한다.

그러나 우리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축하는 것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데만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광복절이나 3.1절은 국가유공자들만 의 날이 아니라 대한독립을 부르짖던 한사람, 한사람의 날이며, 우리 모두의 날이다. 우리 모두는 광복이라는 벽한 기쁨과 자유를 안겨준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올려야 한다. 3·1운동에 모두가 대한독립을 외쳤듯이, 광복의 날에 모두가 만세를 외쳤듯이, 지금

의 우리들도 함께 대한민국의 광복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한편에 태극기 하나 게양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되자.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단결 한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강해질 것이며 다시는 지난날 조국을 빼앗겼던 처욕스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정신이라 할지라도 여태 풀려난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있었던 우리 애국선열들이 남긴 고귀한 정신을 새로 바라보고 사고하고 높이 받들 때 발견되는 것이다.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8월 15일 광복절, 이날만큼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민족을 위해 애국애족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깊이 일깨우고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류종열

의정부광역시청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 發刊

전남 및 제주도 전통식물 414종류 정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라남도 및 제주도 지방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414종류의 식물들에 대한 분류, 식별, 이용 등에 관해 상세히 정리한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을 발간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의 권리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토종식물의 민속요법에 대한 여러 종류의 책자들이 발간되고 있으나, 식물이름이 정확한 분류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어 식물정보의 전달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은 전라남도 및 제주도 지방의 민간에서 이용되었던 414종류의 식물들에 대한 분류, 식별, 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며, 식·약용식물을 연구하는 학자 및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민속식물은 BT산업의 발달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세계 각국별로 자생식물에 대한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라남도 및 제주도 지방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414종류의 식물들에 대한 분류, 식별, 이용 등에 관해 상세히 정리한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을 발간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2005년부터 전통식물자원의 발굴 및 보전 연구과제로서 전통(민속)식물에 대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택시강도 검거 협조 민간인에 포상금 전달

포천경찰서, 내촌면 손동신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8월 14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 경찰관에 표창수여 및 치안협력유공 민간인에 포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인 영북파출소 신상명 경사 등 5명은 기능별 업무실적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내촌파출소 이진우 경사 등 4명은 중요범죄 검거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내촌파출소 최재우 순경은

7월25일 오후 9시경 내촌면 읍면리 소재 은성공업사 앞 노상에서 발생한 택시강도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한 유공으로 포상을 수여했고, 아울러 유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내촌면 거주 손동신씨에게는 감사장 수여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위 동료에게도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민간인에게는 경찰업무에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에 뜻을 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중남미 경제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포천시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상품 제조업체의 중남미 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경제통상촉진단을 구성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경제통상촉진단은 관내 공장등록업체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업체로 10개업체이다. 또 파견기간은 오는 11월12일부터 22일까지로 파나마와 페루 리마, 칠레 산티아고 등이다.

경제통상촉진단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체는 현지 국가에 설치되는 상담장 임차료와 통역비 및 바이어 섭외비, 광고선전비 전액과 항공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8월30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영문카탈로그 15부를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포천시청 전화 031-538-2284로 하면 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세계에서 가장 큰 매미표본 확보

수목원, 생물다양성 연구자료 활용기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황제 매미표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매미는 전세계적으로 3,000여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5종정도가 보고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매미는 황제매미로 국립수목원에서 이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매미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매미표본은 기증을 통하여 확보됐다. 참매미를 비롯한 한국산 15종과, 세계최대의 매미인 황제매미(몸길이 11cm)를 비롯한 외국종 95종 및 기타 곤충표본을 포함하여 총 2,500여 점이 기증됐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흔하게 들을 수 있으나 높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생태습성상 실제로 채집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귀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매미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매미표본을 기증한 이영준 박사는 국내 유일의 매미 연구가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황제매미 (황제) Parnassius imperator (Westwood)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황제 매미표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라는 물론 외국 각지를 다니면서 수행한 매미연구를 통해 확보된 표본을 국립수목원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목원은 확보된 표본들을 토대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및 세계의 생물상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website URL.



포천경찰서는 8월14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 경찰관에 표창수여 및 치안협력유공 민간인에 포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headline '언제나 바른뉴스!' and '포천신문' with website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